

‘낮은 하늘 아래 좁은 길을 걷다’*

- 만주국 여성작가와 문학 연구

정겨울**

— 목 차 —

1. 들어가며
2. 가난과 폭력에 얼룩진 여성들의 자화상
3. 식민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의 제스처
4. ‘일상’의 발견과 ‘생존’에 대한 서사
5. 나오며

국문초록

중국에서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만주국 여성작가에 대한 소개와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의 연구 공백과 관련 사료 등의 소실로 인해 여성작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큰 간극을 드러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문학창작이 지니는 특징과 정체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본고에서는 당시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여성작가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의 삶과 사회인식 등에 대해 분석하고, 만주국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전개된 여성작가들의 창작활동이 보여주는 문학적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시도한다. 무엇보다 이들이 그려내는 여성들의 비극적 삶과 일상성의 발견이 만주국 문학을 ‘항일-친일’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기존 연구 시각에 어떠한 균열 지점을 만들어 내는지 살펴보며, 작품 속에 내재한 다양한 사회적 함의에 대한 재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9383).

**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부 강사

고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키워드: 만주국문학, 만주국 여성작가, 식민지문학, 여성서사, 서발턴, 일상성

“”>? <Q`

만주국(, 1932-1945) 시기 문학은 중국 동북현대문학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별히 이 시기 만주국 문단에는 여성 작가들이 대거 등장하였는데 이들의 활발한 문학 창작 및 사회 활동은 만주국 문학사에 있어서도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당시 만주국 문단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여성 작가로는 우잉(), 단디(), 양취(), 란링(), 주티(), 줘디()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만주국 성립 이후 관내()로 이주했던 샤오흥()이나 바이량(), 메이냥() 등과는 달리 상당한 기간 동안 만주국에 머무르거나 줄곧 만주국 문단에 기반을 두고 문학 창작을 지속한 작가들이다.¹⁾ 본래 문화적으로도 낙후된 지역이자 일본의 식민지

1) 여기에서 언급한 우잉(), 단디(), 양취(), 란링(), 주티(), 줘디()는 소위 ‘동북연합구작가()’(당시 관내 지역에서 활동했던 동북 출신의 작가들은 ‘동북(유망)작가군() 群’)으로 명칭)로 일컬어지는 만주국 내 중국인 작가 그룹에 속하는 인물들로 만주국 시기 만주국 내부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이다. 비록 이들 중 일부 역시 해방 이전 만주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했었지만 대부분이 만주국 성립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이곳을 근거지로 문학 창작을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잉의 경우에는 만주국 성립 초기부터 1946년 난징()으로 이주 전까지 줄곧 만주국에 머무르며 창작, 편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메이냥의 경우 만주국 혹은 화베이() 지역의 대표적인 여성작가로 꼽을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당시 만주국 내에서 창작활동을 했던 여성작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기에 명단에서 제외하였다. 상술한 작가들의 명단은 1980년대 동북 여성작가 소설선집으로 출판된 량산딩()의 『 』와 류사오리() 교수가 주 편집을 맡은 총서 『 』의 여성작가 작품집, 대표적인 만주국 여성작가 연구자인 캐나다 학자 노먼 스미스(Norman Smith)의 『 「 』—— 』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로 전략한 만주, 즉 중국 동북 지역에서 이와 같은 여성작가들의 등장과 활발한 창작 활동은 만주국 문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비록 이들은 만주국 문단에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여전히 수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다. 우선 일본의 식민지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나 저항의 표출은 물론이거니와 만주국의 일상생활이나 인물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과정에서도 식민지 사회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는 좀처럼 드러내기 어려웠다. 이와 더불어 오랫동안 봉건적 전통을 유지하고 남권중심주의적 의식이 만연한 만주국 사회 내에서 이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와 차별을 받기 일쑤였다. 일례로 만주국의 근대화가 추진되며 여성 교육 등이 확대되었고 대다수의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들은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어 많은 제약과 차별을 받았다. 특히 당시 만주국에서는 '신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활동과 능력이 저평가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 구조 속에서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라는 외부의 적 외에도 편견과 전통에 얽매어 있는 내부의 적과도 끊임없는 사투를 벌여야만 했다.

이와 같은 원인 외에도 지역적, 민족적인 차별로 인해 이들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주지하다시피 만주로 일컬어지던 중국 동북 지역은 본래 중원지역과 정치적, 문화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만주족의 발원지로 여겨졌던 이 지역은 청조() 시기에는 봉금령이 내려지기도 했으며, 예로부터 '관동()', '관외()' 등으로 구분되었기에 관내, 관중()과는 지역적인 경계가 뚜렷한 곳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20세기 초에는 장췌린(張)을 중심으로 하는 군벌세력의 통치를 받으며 독자적인 사회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 지역 사람들을 자신들과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지인'으로 여기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관내 지역 대다수 사람들은 만주(현 동북삼성) 지역에서

모든 측면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처해있었다. 환언하면,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민족적, 계급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었고 젠더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가부장적인 사회제도의 타자들로만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후 중국 사회에서 만주국 문학 연구 자체에 대한 배제와 억압으로 인해 충분한 논의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주국 문학은 해방 이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과 함께 중국의 사상적 제약으로 인해 자유로운 논의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졌다. 그러던 중 1980년대 이르러 문학사 다시 쓰기를 비롯해 개혁개방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힘입어 만주국 문학은 새로운 연구시각의 도입과 평가의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 만주국 문학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민족주의적 사관(史)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대부분의 연구는 당시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의 사상 점검과 작품 해석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에 치중하게 된다. 그리하여 1980년대 이후 만주국 문학, 곧 동북현대문학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작품 속 항일의식과 관련된 내용과 이에 대한 발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변화는 만주국 문학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만주국 문학을 '항일문학'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한계를 초래하기도 했다.

물론 만주국 시기 창작된 다수의 문학 작품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발견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오로지 이와 같은 일방적이고 단일한 기준으로 만주국 문학을 바라보는 것은 그 속에 담긴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함의를 외면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저항-협력'의 이분법적인 연구 시각의 고정화는 결국 "계급, 젠더, 인종이 얽힌 식민주의의 역동성을 놓치게 만"⁵⁾ 들었다. 더군다나 일본의 삼엄한 감시를 받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기준으로 만주국 문학을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조금 다른 시각에서 당시 만주국에서 창작

5) 한석정, 『만주모던—60년대 한국개발 체제의 기원』,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6년, 45쪽.

된 문학 작품을 들여다보면 대다수 작품들은 오히려 만주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평범한 인물들의 일상을 그려내고 있으며 작중 인물들이 겪는 질병, 가난, 죽음, 실패와 좌절 등을 통해 인류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탐구와 비극적 인생에 대한 위로를 전달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등장과 창작 활동은 당시 만주국 문학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특수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문학 창작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성, 특히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주체 의식과 문학 정체성 등에 대한 이해는 선행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 향후 만주국 여성작가와 문학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만주국 시기 활동했던 여성작가들의 문학 작품을 통해 각기 다른 층위에서 바라본 여성(작가)의 정체성과 문학 창작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여성작가들이 주목했던 만주국 여성들의 현실과 만주국 사회가 지니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만주국 여성교육에 내포한 식민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파악하고 만주국 여성작가들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 이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발신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셋째, 만주국 내부에서 활동했던 여성작가들과 타 지역에서 활동했던 해당 지역 출신 여성작가들의 문학창작에 대한 비교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문학 정체성과 주체의식 형성 과정에 대한 특징을 고찰한다.

1. 『<Rfl 'UST 'WX 'YH>』 'Z [』

당시 만주국 문단에서 활동했던 여성작가들은 만주국 내 대다수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인생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의 문학 창작

대부분은 각기 다른 여성 인물들의 다양한 인생사를 통해 식민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여성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여성작가들이 주목했던 부분은 여성들의 비극적 삶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찰과 발견이었다. 그렇기에 이들의 문학 창작은 당시 만주국 사회가 여성에게 가하는 억압에 대한 고발과 함께 만주국의 사회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특히 이 지역은 만주국 성립 이전부터 상당히 뚜렷한 지역적 특수성을 드러내는 공간이었다. 이곳은 샤머니즘 사상의 정신적 지배, 봉건적인 지주-농노의 위계질서, 남권중심주의적인 사회 분위기, 다양한 민족의 혼재 등으로 끊임없이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게다가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국토의 함락이라는 비극적 상황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함께 혹독한 민족적, 계급적인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 지역의 여성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남성들과는 차등적인 존재로 여겨졌으며 사회적 약자로 존재해 왔다. 거기에다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으며 여성은 만주국 사회 내에서 최하위계층으로서 가중의 억압을 감내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 시기 여성작가들의 작품 속에는 만주국 여성들이 겪는 비극적 상황들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농촌 여성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주변적 인물로 존재하거나 남성에 의한 폭력이나 사회적 편견에 의해 희생당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만주국 여성들의 비극이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지역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남권중심주의 사상과 가부장적 위계질서는 여성들의 신체와 정신을 속박하였고 이는 여성들의 인생을 파괴하거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즉 만주국 사회 구조가 지니고 있는 모순은 곧 만주국 여성들의 비극적 삶의 궤적과 맞물리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비단 만주국 내에서 활동했던 여성작가들에게서만 드러났던 것은 아니다. 만주국 성립 직후 고향을 떠나 관내 지역에서 창작

활동을 전개했던 샤오홍 역시 작품 속에서 무지몽매하고 순진한 농촌 여성들의 인생 굴곡을 통해 이들이 겪는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한다. 그녀가 인식하기에 진정한 “적()은 단순히 일본 침략자와 중국의 통치 계급만이 아니며 사람들의 머릿속과 생활 습관에 스며들어 있는 오래된 관념과 역사의 침전물”⁶⁾이었다. 샤오홍의 『생사의 장()』의 진즈()는 남성의 성적 욕망과 폭력의 희생자였으며, 『후란허 이야기()』의 환위안 색시()의 죽음은 미신에 대한 맹목적 신념으로 인한 비극적 결말이었다. 이처럼 이 지역에서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왔던 전통, 미신, 남존여비 사상 등 다양한 사회 구조적 문제들이 여성에 대한 억압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가난과 폭력 이었는데 이는 특히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편이나 아버지와 같은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죽음에 내몰리게 되면 곧바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내몰렸다. 또한 지속적인 신체적 폭력 이외에도 전통적인 사회 관념에 의한 정신적 폭력에 시달려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작품 속에서는 가난과 폭력으로 얼룩진 여성들의 자화상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단디의 작품 『나무하는 아낙네()』⁷⁾는 가난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달픈 여성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남편을 잃은 ‘엄마’는 시어머니와 어린 딸과 함께 생계를 위해 몰래 남의 숲에 들어가 뿔감거리를 찾아다닌다. 일찍이 산 주인에게 들켜 호된 매질을 당했던 그녀는 불안함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뿔감을 주울 수밖에 없다. 그러던 중 우연히 숲에 놀러온 젊은 연인이 딸아이에게 굴 하나를 주고 간다. 그러나 아이는 그만 손에 쥔 굴을 놓치고 굴러가는 굴을 잡으려다 넘어져 한참을 산등

6) , 『 史 』, : , 2004년, 186쪽.

7) , 『 』, 『 』, : 藝 , 1986년, 223-228쪽.

성이 밑으로 구르고 만다. 혼비백산한 그녀는 간신히 아이를 일으키지만 아이는 이미 팔이 부러지고 의식이 흐릿하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나이든 시어머니만을 숲에 남겨둔 채 발걸음을 재촉한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해서 땀감을 줍는다. 이 소설에서는 ‘엄마’는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한 가난한 여성으로 묘사된다.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인데 그저 몰래 남의 숲에서 땀감거리를 훔쳐다가 파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이 또한 허기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단디의 또 다른 소설 『수혈자()』⁸⁾에서는 가난으로 인해 매혈()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비록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미국이고 주인공 역시 이국 여성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녀는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매춘부로 전락하거나 반복적으로 매혈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고 결국에는 과도한 채혈로 인해 목숨을 잃고 만다. 이처럼 가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으며 대부분의 방법은 그녀들의 ‘신체를 소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에게 가난은 더욱 가혹한 시련으로 다가온다.

란링의 『단오절()』⁹⁾ 역시 가난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사고로 남편을 잃은 후즈 엄마()는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운다. 그녀는 근근이 손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이라 당

8) 이 소설은 화자인 ‘나’가 파혼 수속을 위해 미국에 있는 약혼자를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서두에서 “나의 약혼자는 죽었다”라고 말하며 화자는 자신의 약혼자가 미국인 여성과 사랑에 빠져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한 엄청난 상실감과 비애를 느낀다. 그런데 도착한 볼티모어 시에서 우연히 한 목사를 만나고 그는 기자인 ‘나’에게 죽어가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간청한다. 그곳에서 ‘나’는 주랑()이라는 한 청년을 만나고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청년은 자신과 이리나()라는 여성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힘겹게 들려준 이튿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 『 』, , 『 』, : 藝 , 1986년, 229-237쪽.

9) , 『 』, , 『 』, : 藝 , 1986년, 349-353쪽.

장 내일이 단오절이지만 창포 풀 하나 사기도 버겁다. 그날 어린 아들은 쫘즈()를 사달라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후즈 엄마는 결국 아이의 뺨을 때리고 만다. 그날 밤 후즈 엄마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남편의 불행과 재가()에 대한 고민으로 심경이 복잡하다. 결국 그녀는 어서 바느질을 끝내 돈을 받게 되면 반드시 아들에게 쫘즈를 사주겠노라며 바느질을 재촉한다.

란링의 작품 속에서 그려지는 여성(어머니) 역시 남편을 잃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아직까지 그녀는 어린 아들과 죽은 남편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만 극심한 생활고는 그녀로 하여금 심각하게 재가를 고려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재가는 여성이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사랑이나 삶을 쟁취하기 위한 능동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동한다. 즉 여성은 또 다른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가기를 강요받으며 결국 이들의 생존은 남성의 경제적 능력과 보살핌에 의해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

취디의 『좁은 골목()』¹⁰⁾에서도 가난과 폭력에 얼룩진 여성들의 삶이 등장한다. 화자인 ‘나’의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타지를 유랑하는 처지가 되었고, ‘나’는 홀로 두 아이를 데리고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만 했다. 생활에 필요한 돈을 충족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집안 살림을 계속 팔다가 결국에 ‘나’와 아이들은 좁은 골목에 위치한 작고 지저분한 방을 한 칸 얻어 살게 된다. 그곳에서 ‘나’는 동향()인 주원()을 만난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집 앞에서 처음 보는 얼굴의 여성을 마주친다. 그리 크지 않은 키에 약간 왜소한 체격의 그녀는 살며시 미소를 보이더니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이웃집 여자의 동생 샤오후이()였다. 주원에 의하면 샤오후이의 언니는 동생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영위했는데 걸핏하면 동생을 때리고 욕했으며 심지어 돈을 벌어오라고 매춘을 강요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샤오후이는 여러 번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다.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주원의 오

10) , 『 』, 『 』, : 藝, 1986년, 400-413쪽.

빠가 살아 돌아오고 주원은 오빠를 따라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샤오후이의 처지를 가엾게 여겨 함께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가자고 권유한다. 그러나 떠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샤오후이는 경찰에 잡혀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후 언니와 그녀의 애인에게 심한 구타를 당한다. 그 후 '나'는 친척집으로 이사를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샤오후이의 소식이 궁금해 찾아간 좁은 골목집에서 그녀의 언니를 통해 샤오후이가 약을 먹고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몸이 마비되는 것만 같았다. 아름답고 부드러운 샤오후이의 얼굴을 떠올린 채 '나'는 그저 말없이 좁은 골목을 빠져나온다.

『좁은 골목』에서 주목해야 할 특징은 샤오후이의 비극이 단순히 젠더적 차별에 의한 폭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같은 젠더에 의한 억압을 당하는 데 있다. 이러한 사실은 샤오훙의 소설 『후란허 이야기』의 탄위안 색시와 그의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연상케 한다. 탄위안 색시의 시어머니는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폭력을 아무런 의식 없이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전가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는 남성에 의한 신체적 학대나 폭력 외에도 같은 여성으로부터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당하고 있는 당시 여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폭력은 서발턴에 대한 또 다른 서발턴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더욱 모순적 성격을 드러낸다.

주티의 『수초()』¹¹⁾ 역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타지로 나간 후 소식이 없는 남편을 찾기 위해 '엄마'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무작정 길을 떠난다. 며칠 밤을 새며 기차를 타고 도착한 작은 소도시에서 그녀는 남편의 행방을 묻다 우연히 한 가게에 들어가게 된다. 늦은 밤 추위와 배고픔에 더 이상 길을 재촉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녀와 아이는 결국 가게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숙박비를 지불할 수 없던 그녀는 이를 대신해 가게의 허드렛일을 도와주기로 한다. 가게 주인은 그녀의 남편을

11) , 『 』, 張 , 『 』 , : , 1996년, 657-669쪽.

만난 적이 있다는 듯이 말했지만 도움은커녕 오히려 호시탐탐 그녀를 차지하려고 한다. 결국 그녀는 가게 주인에 의해 겁탈을 당하고 마을에는 그녀가 곧 가게주인에게 시집을 간다는 소문이 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주인이 크게 다쳤다는 소문과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쳐 그녀와 아이를 잡아간다. 그녀는 결국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만다. 그녀는 감옥에서 울부짖으며 “치욕스러운 발해()와 기근에 허덕이는 대륙, 그리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성()적 학대”를 떠올리며 분노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지나간 과거를 하루 빨리 잊고 새로운 날이 다가오기를 희망한다.

『수초』에서 주티는 가난과 성적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 인물의 비극적 상황을 묘사한다. 또한 그녀의 이러한 비극은 역시 남편의 ‘부재’와 연결된다. 남편을 찾아 도착한 타지에서 그녀는 경제적으로도 고립되었으며 오히려 다른 남성에 의해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의 희생자로 전락하고 만다. 더욱 역설적인 것은 본래 피해자였던 그녀가 마침내 이를 거부했을 때 오히려 그녀는 가해자의 신분이 되어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만다. 이는 서발턴의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계급적, 젠더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한 여성들은 그들이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호받거나 도움을 얻지 못하고 또 다른 사회적 억압에 희생되고 만다. 즉 이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혹은 목소리를 내었다 해도 이것이 ‘외면 받는’ 서발턴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가난과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모습은 식민지배와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이중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만주국 여성들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 \ 'M^` _ 7T `k a `bc) `edf

만주국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인식에 대한 큰 변화를 가져온 계기 중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식민지배자들이 주도한 근대화 사업과 관련이 있다. 일본은

만주국 성립 이전부터 이미 만주 지역에 대한 서양식 근대화를 주장하며 철도 건설을 비롯한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문명화 사업을 추진한다. 메이지유신을 거치며 성공적인 근대화를 이룩한 일본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만주국이라는 새로운 제국 건설과 식민지배의 용이를 위해서는 만주국의 서구식 근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그리하여 당시 철도나 건축 등은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는데 이는 만주국 사회의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기술을 '흥아(興亞) 기술'이라고 명명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화와 산업화는 식민 통치와 이데올로기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¹²⁾

그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근대화는 단연 교육방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새로운 제국을 표방한 만주국에서 여성들에 대한 근대적 교육과 성숙한 국민으로의 양성은 만주국의 주요 과제이기도 했다.¹³⁾ 그러나 사실상 당시 일본 정부가 주도한 여성교육은 전시 동원과 식민 통치 용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었다. 일본은 교육을 통해 만주국 여성들에게 가정에서 남편을 보필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 필요한 실용적 지식을 가르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여성들의 희생과 노동을 전시 상황에서 후방을 지탱하는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가정' 혹은 '가족'은 만주국 성립 이후 국가 체제 하에서 "통치성의 전망에서든 자체 안정성에 관한 체제의 직접적인 관심에서

12) 한석정 지음, 『만주모던—60년대 한국개발 체제의 기원』,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6년, 40쪽.

13) 스피박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에서 제국주의(식민지배자)와 여성의 관계를 언급하며 "좋은 사회를 확립하는 자로서 제국주의(혹은 지구화)의 이미지는 여성을 같은 종족에게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옹호하는 입장에 의해 특징지어진다(110쪽)"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만주국 시스템과 여성의 관계에 대입할 경우 비록 일본 정부의 진짜 목적은 식민통치를 위함이었지만 명목상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이 만주국 여성들을 기존의 야만적이고 덜 진화된 사회로부터 해방, 보호한다고(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만주국의 이상적인 국민으로 양성하는) 인식하는 것파도 일정 부분 상응한다. 로절린드 C. 모리스 엮음,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지음, 태혜숙 옮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서울: 그린비, 2019년, 97-115쪽 참고.

든”¹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졌다. 일본은 만주국 여성, 특히 중국인 여성들의 교육에 있어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과 함께 육아, 위생, 근검 등의 덕목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교육의 강조는 당시 일본의 눈에 비친 중국 여성(여학생)들의 모습을 가늠케 한다.

나는 절대로 중국 여학생들이 가정생활을 중요시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멸시하거나 비방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중국인들은 특별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 영민하고 총명함, 그리고 귀여운 구석은 외국인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중국인 여학생은 학교생활을 할 때 이상적인 ‘남편’은 생각하지만 이상적인 ‘가정’은 생각해보지 않는다. 그녀는 가정()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일본에서와 같이 ‘화가학교(: 신부학교)’ 같은 곳을 다녀본 적도 없다. 그러나 필요시에는 자연스레 이를 해내는데 그녀는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시장에 나가 야채를 사고, 야채 장사와 흥정까지 한다. 생선요리, 닭요리 등도 할 수 있으며 남편의 양복은 잘 다려 놓는다. 아이를 임신한다면 이미 임신 초기에 아이의 옷을 다 지어 놓는다.....솔직히 이런 일들은 그녀들이 처한 환경에서는 필수적인 작은 기술들인데 학교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¹⁵⁾

해당 사설은 1939년 ‘동아신질서건설운동’ 특집호로 발행된 『화문 오사카 마이니치()』에 실린 것으로 위의 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은 중국 여성들이 근대적이고 문명화된 가정생활을 이끌어 나갈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여성에 대한 학교교육(혹은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가정을 이룬 후 여성은 소위 아내의 미덕을 갖추고 가정을 유지하는 일종의 전문가로 거듭나는데 이러한 변화를 당연하고도 우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당시 일본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가정생활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성의 양성이 필

14) 프래신깃트 두아라 지음, 한석정 역,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파주: 나남, 2008년, 282쪽.

15) 『화문 오사카 마이니치』, 『화문 오사카 마이니치』, 1939년, 제2권 제5기 제9호.

하는 여성들은 타이피스트(Typist)로 일하는, 소위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신곤도』에 등장하는 열제()는 이혼을 했지만 다시 재혼은 하지 않고 자유로운 연애생활을 즐기는 인물로 등장한다. 더군다나 열제는 사실상 집안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엄마는 이런 열제를 하루 빨리 다시 시집을 보내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이다. 둘째 이모가 중매자리를 소개해주지만 열제는 물론이고 비록 열제가 시집가는 것을 찬성하는 나조차도 상대 남성에게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 이처럼 결혼하지 않은 나이든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외부의 압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열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며 살아간다. 열제와 같은 인물은 당시 사회적 분위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인물로 비추어진다. 그녀는 전문직 여성이자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혼 경험과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한다. 여기에서 열제는 전통적 여성의 미덕(혹은 ‘제국’의 이상적 여성)으로 여겨졌던 가정에 머무는 여성, 남편과 아버지에 순종하는 여성, 결혼과 출산과 같은 여성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여성과는 대치되는 인물로 기존 사회의 통념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있다.

『반항하는 여자()』의 리핑() 역시 전통적인 여성상과는 거리가 먼 인물로 묘사된다. 그녀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동료들을 유혹한다던가 자신의 연애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 아이와 시어머니를 고향집으로 돌려보내는 상당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²¹⁾ 그녀에게 있어서 자유로운 연애생활과 그로 인한 쾌락은 자신의 청춘과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리핑의 이런 파격적인 행동은 비록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하겠지만(심지어 불륜으로 생긴 아이를 지우기 위해 낙태 수술을 받다 생명을 잃기까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언제나 수동적

20) 위와 같은 책, 13-18쪽.

21) 실제로 우잉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이 여성의 사회 활동과 신체에 가하는 억압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작가였다. 우잉은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기고 남편과 집을 나와 여관에서 생활하며 창작 및 편집 활동을 하기도 했다.

국의 내셔널리즘과 만주국의 문명 담론이 계승했던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²⁶⁾이라는 두아라의 평가처럼 단디의 『혈족』은 여성이라면 으레 참고, 견뎌야만 했던 부조리한 사회 통념과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남성에게 종속되는 대다수 여성들의 운명에 대한 일종의 반항의식을 드러내는 작품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식민 이데올로기와 전통적인 사회 통념의 이중적 억압 속에서 만주국의 여성(작가)들은 약간은 다른 방식을 통해 소극적이거나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의 학교교육이 식민 이데올로기의 주입이라는 뚜렷한 목적성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이 가정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각종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비록 이러한 의지가 만주국 사회를 변화시킬만한 역량으로 발전 하지는 못했지만 식민지배라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만주국의 여성들은 삶에 대한 끈기와 집착을 드러내었다. 이는 어쩌면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봉건적 사상 지배의 이중적 딜레마에 빠진 만주국 사회에 대한 여성들의 완곡한, 그러나 한편으로는 묵직한 저항의 목소리로 읽힐 수 있지 않을까.

\$`*g† -) `i h fl `*j k -T `k a `~ l

동북현대문학사 서술에 있어서 만주국 시기 여성작가들의 창작활동은 동북문학을 항일문학사의 시각에서만 읽고자 한 기존 연구에 있어 하나의 균열 지점을 만들어낸다.²⁷⁾ 상술하였듯이 이 시기 문학, 특히 여성문학은 만주국

26) 프래신깃트 두아라 지음, 한석정 역,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파주: 나남, 2008년, 281쪽.

27) 만주국 문학을 ‘항일-친일’의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읽고자 했고, 이러한 시각이 중국

사회를 살아가는 다양한 여성들의 삶과 인생에 대한 서술을 통해 만주국 문학이 지니는 다성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전통적 가부장제와 식민지배, 가난과 폭력으로 얼룩진 여성들의 비극적 삶에 대한 고발을 통해 소극적이거나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작가들은 만주국이라는 기형적인 공간 속에서 자신들의 길을 개척하고자 고군분투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문학 정체성과 서사적 특징에 대한 이해는 당시 이들의 관심 대상을 비롯해 문학 창작이 내포하고 있는 사상적 특징의 발견과도 연결된다. 이를 위해 본장에서는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작품 창작을 당시 다른 지역에서 활동했던 만주(동북) 지역 출신의 여성작가들과의 문학 창작과 비교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을 비롯해 국내 학계에서 동북문학의 대표적인 여성작가로는 단연 샤오홍을 들 수 있다. 이를 반증하듯 현재까지도 샤오홍 연구는 동북 출신 여성작가들 중에서 그 연구 성과나 양적인 측면에 있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샤오홍이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던 원인으로는 중국 현대문학사 서술에서 소위 항일문학의 선봉자로 알려진 동북작가군(

학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1980년대 이후부터 만주국 문학사 서술에서 엘리트 민족주의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동안 중국에서 만주국 문학 연구 영역에서는 소위 '항일'문학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작품들을 일률적으로 '친일'문학으로 정의하거나 그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려했는데 이로 인해 상당히 폐쇄적인 연구시각이 형성되었다. 또한, 1950년대부터 문화대혁명 시기 대다수가 반동분자, 친일파로 몰렸던 만주국 출신 작가들은 문혁 종료 후 만주국 시기 창작 활동에 대한 철저한 자기 검열과 함께 스스로가 자신의 작품에 담긴 저항의식, 애국의식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대다수 작품은 이러한 기준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엘리트와 분리되며, 권력관계의 '내부에서' 그들과의 '차이'를 드러"(김택현, 「그람시의 서발턴 개념과 서발턴 연구」, 289쪽)내는 지점에 위치한다. 이들은 비록 계급, 젠더, 민족에 있어 종속적인 '서발턴'의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지배계급과는 다른 경험과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문학창작은 만주국 문학 연구에 대한 기존 담론에 균열을 내고 있으며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群)의 대표적인 인물로 언제나 그녀의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1930년대 샤오홍이 관내 문단에 등장한 이후 루쉰(魯迅), 마오둔(茅盾), 후평(胡平) 등과 같은 당대 유명한 문학가, 비평가들의 평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²⁸⁾ 이후 중국 문학사에서 그녀의 문학은 줄곧 ‘대표적인 동북 항일문학’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회자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그녀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 <황금시대>가 2014년도에 중국에서 개봉하며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이 대중의 인식 속에 각인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리디아 류(Lydia Liu)와 같은 연구자들은 샤오홍 문학 창작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로운 연구 시각을 제시하며 그녀의 문학 텍스트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이후 중국을 비롯한 국내 학계에서도 샤오홍의 작품을 그저 단순한 ‘항일문학’의 범주에서만 읽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등장하며 샤오홍 연구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²⁹⁾ 실제로 그녀의 문학 창작은 일반적인 항일문학이라기 보다는 유랑의 삶을 사는 한 여성의 고향에 대한 애증, 동년(童年) 시절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을 그려내고 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작품에서 자신이 떠나온 고향에서 여전히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다양한 인생들, 특히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민족주의적 담론에 억압된

28) 「『 』 』에서 루쉰은 이 작품이 독자들에게 “군세고 버티고자 하는 힘”을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후평은 「『 』 記」에서 “이 작품은 우매한 민중들의 비애와 고난을 그려냈을 뿐 아니라 파란 하늘 아래 흐릿한 핏자국과 그 흐릿한 혈토() 위에 강철과 같은 전사들의 의지를 서술한 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후평은 그녀의 작품이 동북 민중들의 저항과 투쟁을 잘 드러내거 있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러한 평론은 중국 문학사에서 샤오홍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張 : 『 』, : , 2013년, 299, 301쪽.

29) 중국에서 현대동북문학은 그 범주나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초기 연구에서는 만주국 내에서 창작된 문학은 문학사 서술에 있어서도 배제되었고, 동북문학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대부분이 만주국 성립 이후 관내 지역으로 이주하여 창작활동을 했던 샤오홍, 샤오권(), 단무홍량(), 뤼빈지() 등에 국한되었다. 거기다가 1980년대 중국에서 문학사 서술은 정치 이데올로기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동북문학에 대한 평가와 해석에 있어서 ‘항일’을 강조하며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적 정신에 대한 칭송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 중국 내에서 동북작가군, 동북문학을 바라보는 주요한 연구 시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삶을 사는 여성들의 비애를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샤오홍 문학 창작에서 드러나는 강렬한 여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관심은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문학 창작과도 일정부분 접점을 형성한다. 그러나 샤오홍의 경우 일찍이 만주국을 떠나 관내로 이주하였기에 창작 환경에 있어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샤오홍은 상하이에서 루쉰을 만나 문학적, 사상적으로 큰 영향과 도움을 받았으며 그곳에서 당시 중국 문단의 주선율이기도 했던 좌익문학과 혁명의 열기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비록 샤오홍의 작품이 바이랑과 같이 적극적인 투쟁, 혁명 등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³⁰⁾ 관내 문단의 비교적 자유로운 창작 환경 속에서 그녀의 작품 곳곳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와 저항의 표출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샤오홍과 만주국 여성작가들이 만주국을 바라보던 시각의 차이에 있다. 고향을 떠난 이후 샤오홍은 타자의 신분으로서 관내 지역과 동북의 중간 지점에 서서 관내라는 중심지가 드러내는 권력, 즉 엘리트주의적 민족주의 관점과 지역적 관점이 충돌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³¹⁾ 그렇기에 그녀가 그려내는 만주국 혹은 중국의 동북 지역은 정체된 기억과 환상의 복합체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 지역 여성들의 비극은 민족, 계급이라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중국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

30) 작가 바이랑은 편집자로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1933년에는 『국제협보()』의 편집자를 역임했고 이후 『국제공원()』, 『부녀()』 등 주간지의 편집을 맡기도 했다. 작가가이자 혁명 운동가였던 남편 뤼핑()이 1935년 출옥한 이후 함께 상하이로 이주하였고 곧바로 좌련()에 가입한다. 1941년에는 연안에서 편집활동을 하기도 했으며 1945년 공산당에 가입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동북문예가협회 부주석 등을 맡기도 했다. 바이랑의 문학창작은 대체적으로 식민지 사회와 중법제도에 얽매인 동북지역 인물들의 고난과 투쟁을 그려내고 있으며 여성과 관련해서는 봉건적 혼인 및 출산이 여성의 신체에 가하는 억압과 여성해방의 필요성 등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

31) 이현정, 「1930년대 동북작가군 항일문학의 서발터니티와 재현의 문제—『팔월의 향촌』, 『생사의 장』, 『조국이 없는 아이』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61호, 2012년, 38쪽.

점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성격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달리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여성들의 비극과 그 원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비교적 소극적인 형태로 등장한다. 류샤오리()는 이러한 창작 경향에 대해 '해식문학()'의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환언하면 당시 만주국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들은 식민 지배자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의 목소리를 낼 수는 없었지만 당시 만주국 사회에 대한 비판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식민지 내부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꼬집고 이를 토대로 만주국 체제의 균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만주국의 여성작가들이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문학창작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찰해야 할 지점들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들의 작품 속에서 일본인(직장 상사 및 관리자, 몇몇의 배경적 인물을 제외하고는)에 대한 묘사나 식민 지배(자)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및 분노의 표출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당시 만주국 내 정치적 상황을 비롯해 출판 및 검열 제도의 강화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만주국에서는 이미 1932년 출판법이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당시 문단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은 창작과 출판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이로 인해 작품 속에서 소위 '불온'한 혹은 '위험'한 내용에 대한 서술이나 표현이 있다면 이는 정부의 검열을 통과할 수 없었고 삭제와 출판금지는 물론 작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압력이 가해지기도 했다. 그리하여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문학은 오히려 더 내부적이며 사적인 영역에 대한 서술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자유로운 목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이러한 환경은 오히려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문학 창작이 만주국 여성들의 삶과 일상생활에 대해 집중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일상성'을 발견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첨리첨()은 "(이들은) '정치'(애국항일)를 말할 수는 없지만 '풍월'(현실, 정치에서 벗어난 순수예술)은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말하지 않았던 것은 운합구() 지역 작가들의 선택이었다. 그렇다면 말할 수 있으면서도 말하고 싶었던 것은 곧 '보편적 인생'과 '일상생활'이었으며 이는 자연스러

은 선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선택이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뜻밖에도 그 배후에는 더욱 심오한 생존에 대한 체험, 심리적 동기 그리고 관념의 변화가 숨어있었다”³²⁾고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이 ‘말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³³⁾ 모순적인 상황은 만주국 작가들의 문학 정체성을 비롯해 주체 의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특히 작가, 편집자, 방송인 등으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했던 여성작가들은 대다수 만주국 여성들을 대변하는 존재였으며 그들 스스로 역시 이러한 사명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을 통해 만주국 여성들의 현실을 고발하고 암울한 시대적 상황과 차별적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만주국 여성작가들이 그려내고 있는 대다수 여성들의 인생에서는 ‘우울’과 ‘비에’의 감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작품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들의 탄식은 당시 여성들의 삶이 보여주는 인생의 무게감을 더욱 잘 전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상성’의 발견이라는 부분에 있어 만주국 여성작가의 문학 창작이 동시기 화베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메이양의 문학창작과는 어떠한 점점과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사실상 만주국 문학사에 있어서 메이양은 만주국의 대표적인 여성작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1937년 일본 유학 이전까지 유년시절의 대부분을 만주국에서 보냈으며 초기 창작활동 및 작품집 출판 역시 만주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메이양은 1942년 귀국한 후 곧바로 베이핑()에

32) 群, 「“ ” “ ”之 —— 『 』, 『 』, 1996년 제1기, 28쪽.

33) 대표적인 항일작가로 평가받는 지평()의 산문 제목이기도 하다. 지평은 이 글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말이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것을 말할 수 없는데’, 그 속에 담긴 감고()를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만주국 작가들이 일본의 감시와 탄압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침묵할 수만은 없는 답답한 심경에 대한 토로이다. 張, 『 』, : , 1996년 480쪽.

정착하였고 그 후 줄곧 베이핑을 기반으로 창작활동을 진행했기에 이후 문학사에서는 그녀를 화베이 문단의 대표적인 여성작가로도 평가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메이양의 창작 기반이 되는 만주국과 화베이 지역은 모두 일본의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 상태에 처해있던 곳으로 이와 같은 특수한 공간적 배경하에 그녀는 문학 창작 과정에 있어서 줄곧 식민지의 암울한 사회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한다면 메이양의 작품 역시 제국주의 식민지배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의 표현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메이양의 대다수 작품 역시 이러한 직접적인 저항과 분노의 표출보다는 식민지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 혹은 피식민자의 위치의 농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들의 일상과 우울한 심리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메이양 문학창작에서 드러나는 '일상성'은 주로 젠더나 민족적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들의 우울감, 무기력감에 집중되고 있다.

메이양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수족3부작(三)'³⁴⁾의 경우에도 소설 속 여성 주인공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집안이나 신분이 높은 집안의 아가씨들로 이들은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다. 작품 속에서 이들 대부분은 사랑에 실패해 고통스럽고 집안의 종속에 답답함과 우울함을 느끼는, 일종의 부르주아적 고뇌에 빠진 젊은 여성들로 그려지고 있다. 단편소설 『수술하기 전(之)』에서는 성병에 걸려 병원을 찾은 어느 여성의 독백을 통해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억압과 사회적 편견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또 다른 소설 『교민()』의 경우 일본의 기차 안에서 만난 조선인 남녀의 '나'에 대한 태도를 보며 느끼는 민족적, 젠더적 차등에서 오는 일종의 모멸감과 연민의 감정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메이양의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은 대다수가 개

34) '수족3부작'은 중편소설 『물고기()』(1941), 『계()』(1941), 『조개()』(1942)를 의미한다. 메이양은 『물고기』로 제2회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 상을 수상했으며 『계』는 제3회 '대동아문학상'을 수상한다. 이로 인해 1950년대 이후 메이양은 '친일파', '반동분자'로 몰리며 감옥에 수감되는 등 정치적인 핍박을 받게 된다.

인적 갈망을 강렬하게 표출하고 있지만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작품에서처럼 가난과 폭력, 차별과 사회적 편견 등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처절한 일상과는 거리감을 형성한다. 이는 한편으로 메이냥의 창작 경향과도 연관이 있는데 그녀의 문학 창작은 5.4사상의 영향과 일본문학의 영향을 받아 실험적이고 자유로운 사상이 두드러지며 작품 속 낭만주의 색채가 짙은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³⁵⁾ 그리하여 그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비록 개인적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제로 이를 위해 투쟁하거나 몸부림치기보다는 현실의 벽이 가져다주는 한계에 부딪혀 무기력하며 결국에는 그저 이를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환언하면, 만주국 여성작가들이 식민지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생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면, 메이냥은 이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만주국 여성작가들과 샤오홍, 바이량, 메이냥 등은 모두 동일한 지역문화틀 기반으로 문학 창작을 시작하지만 이후 생활환경의 변화와 작가 개인의 경험, 창작 경향 등의 차이로 인해 각기 다른 시각에서 만주국(혹은 식민지 사회)을 재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이들이 작품 속에서 만들어내는 인물이나 이야기들은 모두 다른 특징들을 드러내지만 결국 이들의 문학은 ‘여성’, 특히 ‘만주국(혹은 식민지)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으며 그 속에는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이 녹아들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만주국의 여성작가들은 정치적 억압으로 인해 자유롭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만주국 여성들의 일상과 치열한 생존에 대한 서사를 통해 그곳의 현실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문학 정체성과 주체성을 형성하고 만주국 문학이 지니는 다양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35) , 「“ ”: 張 , 『 () 』, 2003년 제2기, 127, 129쪽 참고.

; PBQ

중국에서는 해방 이후 식민지 시기 문학, 특히 일본의 괴뢰정부였던 만주국의 문학을 친일문학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만주국 문학 연구는 1980년대 초반까지도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80년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몇몇의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하였다.³⁶⁾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에서는 당시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여성작가와 문학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일부 여성작가들의 작품집을 비롯한 관련 연구 서적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국내 학계의 경우에는 만주국 여성작가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비롯한 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창작환경을 비롯해 문학창작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에 대해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의 전개를 위해서 본고는 만주국 여성작가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이 처한 현실과 사회인식, 그리고 만주국이라는 특수한 시공간에서 이루어진 이들의 창작활동이 보여주는 문학적 정체성에 대한 초보적인 탐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만주국 여성작가들은 비록 제국주의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그 배후에 존재하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 사회체제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저항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만주국의 여성작가들은 작가, 편집자, 가수, 영화배우 등 다양한 직업

36) 이러한 의미에서 량산당의 『
』(1986)는 만주국 여성작가 및 문학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소개하였고, 만주국 문단에서 여성작가들의 활동과 의의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을 경험했고 각각의 집안 배경이나 교육 수준 역시 상이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문학 창작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서사는 여성작가들이 만주국 문단에서 자신들의 문학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들의 작품은 광범위한 사회적 공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이 그려내는 여성들의 삶과 일상들은 만주국 문학을 '항일-친일'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기존 연구 시각에 균열을 만들며 당시 문학 속에 내재한 다양한 함의에 대한 재고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만주국 여성문학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연구 시각에서 벗어나 만주국 문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는 하나의 통로로 이해할 수 있겠다.

參考文獻

- 『51?』, 1939년, 제2권 제5기 제9호.
- 김, 『』, : >@A, 1986.
- 김, 『 ' Mi ž? D』, : >@A, 1996.
- 김, 『 "』, ' &: ' & >@A, 1997.
- 김, 김, 『 "』, 『 (i ž § df) *』, : ' 1i >@A, 2017.
- 김, 김, 『 [김, 『 "』, 『 (i ž § df) *』, : ' 1i >@A, 2017.
- 김, T김 : 『 " (i)』, ' &: ' & >@A, 2013.
- 김, 김, 『 [김, 김, 김, 『 ["』, 『 (i ž § df) *』, : ' 1i >@A, 2017.
- 김, 김, 『 ' (i ž . N』, : Y Z ? ž >@A, 1991.
- 5김, 『 — : ' (i Ú N』, : ' 1 >@A, 2004.
- 김, 『 , Ú f : —“ ”』, ' &: A no ž i >@A, 2004.
- 김, 5김, 『 > [X』, ' &: ? ž >@A, 2004.
- 김, 김, 『 ě 「 ž」 — ž) *』, 『 (i ž § df) *』, : ' 1i >@A, 2017.
- 로절린드 C. 모리스 엮음,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지음, 태혜숙 옮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서울: 그린비, 2019.
- 프레신깃트 두아라 지음, 한석정 역,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파주: 나남, 2008.
- 한석정, 『만주모던—60년대 한국개발 체제의 기원』,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6.

- , 「“F”의 “f”의 “N”」, 『F & ? ž (Ano ž @)』, 2003년 제2기.
- , 「“f”의 “fi”의 “ž”」, 『M』, 2020년 제18기.
- ±, 「“f”의 “s”」, 『f ž Mi ž) *』, 1993년 제1기.
- d, 「“+”f “Æ+”_ — 『f ž i ž ? D』, 『f ž Mi ž) *』, 1996년 제1기.
- 김택현, 「그람시의 서발턴 개념과 서발턴 연구」, 『역사교육』 제83호, 2002.
- 이현정, 「1930년대 동북작가군 항일문학의 서발턴리티와 재현의 문제—『팔월의 향촌』, 『생사의 장』, 『조국이 없는 아이』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61호, 2012.
- 정겨울, 「만주국 여성작가와 문학에 대한 š—우잉()의 문학 창작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92호, 2020.
- 정겨울, 「만주국 여성작가 양쉬()의 삶과 문학에 대한 N—작품집 《나의 일기(—y)》」, 『중국소설논총』 제61집, 2020.

Abstract

'Walking on the Narrow Road Under the Low Sky' - A Study on Manchukuo female writers and their literature

Jung, Keo Yul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identities of the literature of female writers of Manchukuo era. To create context for that, this study starts with analysis of the lives and social perceptions of female characters appearing in the literature of female writers in Manchukuo, and continues to explore the literary identity of the creative activities of those Manchukuo female writers. In that context, this paper finally examines how the discovery of the tragic daily life of women described by them creates a rift in the prevailing research trend that looks Manchukuo literature with 'anti-Japanese or pro-Japanese' perspective, and discusses various cultural meaning which are inherent in Manchukuo female literature.

Key words : Manchukuo Literature, Female Writers in Manchukuo, Colonial Literature, Women' s Narrative, Subaltern, Daily Life

투 고 일 : 2021. 7. 10. / 심 사 일 : 2021. 7. 15.~ 2021. 8. 15. / 게재확정일 : 2021. 8. 20.

